신념과 정견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출가를 지향하는 불교라고 해도 현실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불교의 출가자들은 세속적 가치보다 영원불변한 진리를 추구하며, 불교 신도 또한 현실에서 살아가나 열반이라는 목표를 추구한다. 그 영향으로 불교를 믿는 이들은 세상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견해 등에 기계적 중립을 지향한다.

20세기 후반 수평적 정권 교체 이후 우리 사회는 좌우 진영의 정치적 대결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전 시대까지는 국토분단과 민족 상쟁의 결과 반공을 앞세운 전체주의적 사고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서 다른 의견이 분출될 수 없었으나 비교적 자유로운 정치적 토론 등이 일어나면서 정치 진영 간의 대결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 정점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인한 갈등이 아닌가 한다. 논자는 양비론적 처방을 이야기하는 물리적 중도의 관점에서 필설을 더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우리는 불교를 하는 사람이니 불교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을 뿐이다. 이와 유사한 언급이 경론이 적지 않으나 〈칼라마경〉의 서사가 눈에 띈다.

어느 때 붓다는 칼라마 인들이 사는 께사뿟따마을을 방문하였다. 칼라마 인들은 붓다께 이렇게 여쭙는다. "붓다시여,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이 께사뿟따에 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칭찬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매도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합니다. 다른 사문과 바라문들도 이곳에 와서 각자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칭찬하며,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매도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합니다. 붓다시여, 이런 존경하는 사문들 가운데서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정치적 신념 범람 시대
진정한 정견이 무엇인지 고민
구성원의 공익이 최우선 돼야

이에 붓다는 이렇게 답하신다. "칼라마 인들이여, 그대들의 의심은 당연하다.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라고 해서, 우리 성전에 씌어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또는 추론으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으로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그대들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해로운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런 법들은 지자(智者)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라고 알게 되면 그때 그것들을 버리도록 하라."

자신만이 최상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종교인이나 자신들만이 국민을 위한 최상의 정치이며 행위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신념을 판별하는 기준을 붓다는 제시하고 있다. 그 신념이 구성원 모두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마음에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나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으로 판별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나만이 옳다는 신념은 모두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법률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될 것이다.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대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정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초단절형 인간을 경계하라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세대 갈등은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실시한 미디어 조사 '세대에게 세대를 묻다'에 따르면, 베이비붐세대, X세대, 밀레니얼세대, Z세대 등 모든 세대에서 응답자의 대다수가 세대 갈등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 갈등이 단순한 세대 간 의견 차이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언론보도가 세대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언론의 세대 담론이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고 답하여,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언론이 세대 간 오해와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언론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국의 심리학자 스티브 테일러 교수는 저서 〈불통, 독단, 야망(Disconnected)〉에서 인간을 두 부류로 구분한다. 그는 '연결형 인간'과 '단절형 인간'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연결형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반면, 단절형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경향이 강하다.

불안정 사회 '초단절형 인간' 출현
언론이 세대 갈등과 분절의 주범
연결된 다수 위해 언론이 역할해야

테일러 교수는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초단절형 인간(hyper disconnected person)'의 출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나 억압에 무관심하며, 사회 전반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특성을 보인다.

테일러는 불안정한 사회적 환경에서 사람들은 초단절형 인간의 카리스마에 매료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조차도 문제적 성격을 가진 리더에게 끌릴 수 있으며, 그들의 충동성을 결단력으로, 나르시시즘을 자신감으로, 무모함을 대담함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단절형 인간은 비현실적인 약속과 거짓말을 서슴지 않으며, 타인을 무자비하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윤리적 기준을 훼손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결된 다수'가 깨어나야 한다고 테일러 교수는 주장한다. 인류 사회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연결된 하나'로서 진화해 왔으며, 깨어 있는 의식을 통해 하나로 연결될 때 초단절형 인간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는 언론이 세대 통합보다는 세대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세대 담론의 공론장에서 언론은 공감과 이타심으로 통합과 화합을 추구하는 초연결형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초단절형 존재로 머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언론과 언론인의 이타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社 說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개관에 부쳐

한국은 유·무형 문화유산 중 중요한 문화유산을 지정해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지정문화유산 중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10월 불교중앙박물관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공동주최한 '불교문화유산 보존·전승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 중 불교문화유산은 35%에 이르며, 중요도가 높은 국보와 보물의 경우에는 55%가 불교문화유산(주경 스님)"이라고 한다.

양과 질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문화유산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는 불교문화유산만을 전문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연구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3월 6일 양평 용문산에 조계종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개관한 것은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4월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24년 12월 준공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춘 수장고를 비롯해 재질별 보존처리실, 전시실, 연구시설 등이 들어섰다. 특히 국내 최초로 대형불화를 조사 및 보존처리할 수 있는 대형불화처리실을 갖춘 점은 한국불교만의 유산인 괘불의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새롭게 문을 연 보존센터가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불교복지 선도할 로드맵이 필요하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통한 자비실천에 앞장서 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3월 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 사업계획이 공개됐다.

6월 11일에는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대법회 및 세미나'가 봉행된다.

연말에는 재단 30년 역사를 정리한 '30년사(史)'와 불교사회복지법인의 현황을 정리한 '불교사회복지편람' 발간된다.

불교사회복지단체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불교사회복지협의회 발족과 실무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불교사회복지 아카데미 창립 등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1995년 2월 25일 선대 선각자스님들의 원력과 대중들의 의지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창립돼 복지사업을 시작했다. 30년이 지난 청년이 된 지금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단일법인으로는 전국 최대인 180여 개 시설을 9200여 명의 종사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만 200만명에 달하며 예산규모도 4000억원에 이른다.

지난 30년 불교복지사업은 양적인 성장은 뚜렷하게 이뤘다. 이는 지역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성장해온 것이다. 이제 불교계가 눈을 돌릴 곳은 발굴되지 않은 복지계층이다.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사회가 미쳐 살피지 못한 이들을 발굴하고 도와야 한다. 그들에게 불교계 사회복지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중생을 살피는 관세음보살이 되주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제80차
중앙종회 소집 공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제80차 중앙종회를 3월 24일 월요일 오후 1시 서울 일붕선원에서 개최하오니 중앙종회 의원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9년(2025) 3월 12일
일붕선교종 중앙종회의장 도정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제11대 총무원장
남륜 스님 취임식

대한불교삼론종은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천 천룡사에서 제11대 총무원장 남륜 스님 취임법회를 개최할 예정이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9년(2025) 3월 1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3월 12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